

이번 Porsche Teens 3편은 일본 만화 스타일로 만나다. 주인공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물론 바이작 포르쉐 개발 센터에도 들어갈 수 있다!

공기 저항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기 위해 리서치 중인 벤과 유미. 팀 삼촌을 만나러 풍동 실험실을 방문한다.

하하!
내 공기역학적
덕분에 좀 봐,
유미!

엄청
강하다!

부우우우우

우아아아아아아!

장난 좀
그만해, 벤!

왜?

네가 자꾸 헛소리를
하니까 우리 주제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

안녕,
여들아!

탁

팀 스타르크
포르쉐 개발부서에서
일한다.

우리 풍동 어때,
마음에 드니? 너희들,
공기역학에 대해서
벌써 뭐 좀 배웠어?

안녕,
삼촌!

여기 너무
멋져요!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을 다 이해한
건 아니에요.

좀 더 정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사실 좀 어려워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했어.

공기 흐름
이

휘이이이

작가 Melanie Scho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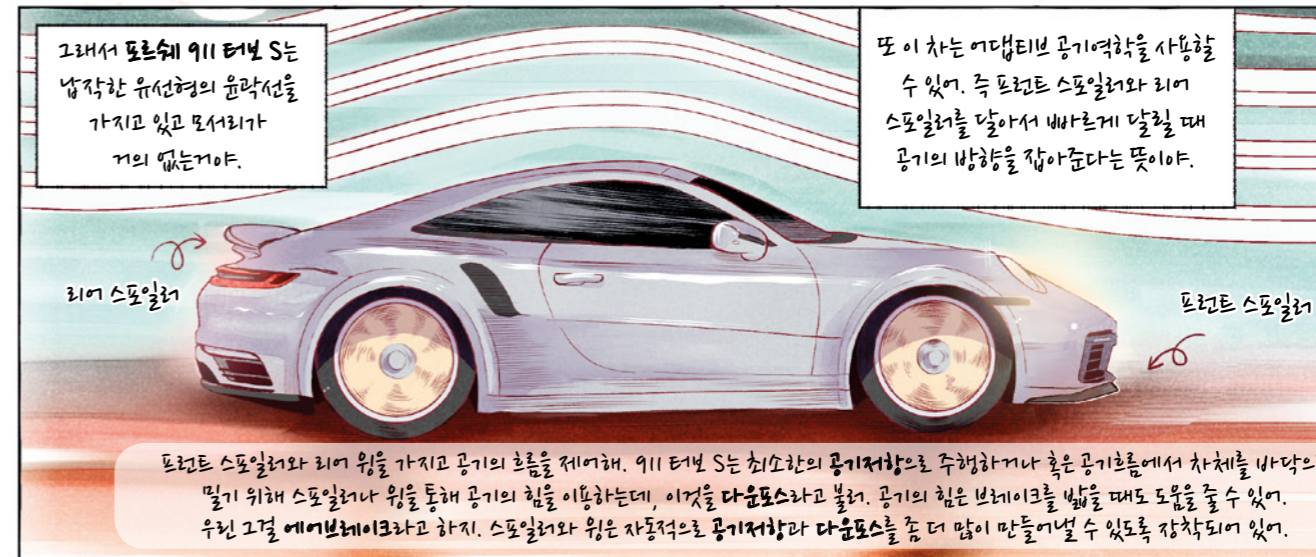


공기역학은 공기의 흐름 안에서 물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공기를 통과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공기의 밀도 때문에 힘이 필요하지.



공기역학 (AERODYNAMIK):
AER(그리스어 공기) + DYNAMIS(그리스어 힘)

다양한 물체들은 저마다 다른 크기의 공기저항을 가지고 있어. 액체 한 방울은 공기 중에서도 아무 문제없이 미끄러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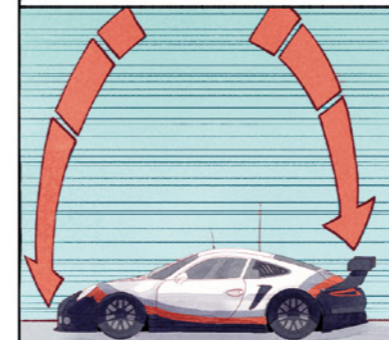


그래서 포르쉐 911 터보 S는 납작한 유선형의 윤곽선을 가지고 있고 모서리가 거의 없는 거야.

또 이 차는 어댑티브 공기역학을 사용할 수 있어. 즉 프론트 스포일러와 리어 스포일러를 달아서 빠르게 달릴 때 공기의 방향을 잡아준다는 뜻이야.

프론트 스포일러와 리어 윙을 가지고 공기의 흐름을 제어해. 911 터보 S는 최소한의 공기저항으로 주행하거나 혹은 공기흐름에서 차체를 바깥으로 밀기 위해 스포일러나 윙을 통해 공기의 힘을 이용하는데, 이것을 다운포스라고 불러. 공기의 힘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우린 그걸 에어브레이크라고 하지. 스포일러와 윙은 자동적으로 공기저항과 다운포스를 좀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장착되어 있어.

911 RSR과 같은 경주차는 프론트 스포일러, 리어 윙, 리어 디퓨저를 이용해 공기의 힘을 최대 1.1톤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



그게 모든 커브를 통과한 후 최종 목적지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데에 도움을 주지.

와아,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설명 감사합니다,
삼촌!



어려나 세상에,
네 머리 속에는 공기만
가득 찼구나, 벤!

하 하 하

Porsche 911 Turbo S Coupé

연비 도심: 15.5l/100km
고속도로: 8.6l/100km • 복합: 11.1l/100km
CO₂배출량 복합: 254g/km